

■ 주요 뉴스: 미국 주식시장, 수개월 동안의 상승세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 증가

- 트럼프 대통령, 연방정부 셧다운 지속 시 연방공무원 해고 경고 되풀이
- EU, 철강 관세를 50%로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도 감축하는 규정안 발표
- 일본 엔화, 신정부 정책 영향으로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

■ 국제금융시장: 기술주 중심으로 주요국 주가 조정. 달러/엔 환율 상승세 지속

미국 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하락[-3bp]

- 주가: 미국 S&P500, 오라클 급락 등 AI 과열 경계감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은 관세 우려로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약보합(-0.17%)
- 환율: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 등으로 강세
유로화는 0.5% 약세. 엔화는 1.0% 절하되며 달러/엔 환율이 152엔에 근접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입찰이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하락
유럽 주요국 금리도 동반 하락. 일본은 1.7%를 앞두고 상승세 주춤(1.69%, -1bp)

※ 뉴욕 1M NDF 증가 1413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415.9원. 1.14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10.7일	10.6일	전일대비			10.7일	10.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714.6	6,740.3	-0.38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2%	4.15%	-3bp
	유럽	569.27	570.24	-0.17%		독일	2.71%	2.72%	-1bp
	중국	휴장	휴장	-		영국	4.72%	4.74%	-2bp
	일본	47,951	47,945	+0.01%	CDS 5y	한국	23bp	24bp	-0bp
	한국	휴장	휴장	-		중국	38bp	38bp	-0bp
환율	달러지수	98.58	98.11	+0.48%	위험 지표	EMBI+	290	287	+4bp
	유로화	1.1657	1.1711	-0.46%		VIX	17.24	16.37	+5.31%
	엔화	151.90	150.35	-1.02%		WTI유	61.73	61.69	+0.06%
	위안화	휴장	휴장	-	원자재	구리	509.8	503.8	+1.18%
	원화	휴장	휴장	-		금	3,984.9	3,961.0	+0.6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식시장, 수개월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 증가

- 오라클이 장중 한때 7%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걸쳐 주가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대두. 동사는 AI 데이터센터 건설·유지 비용이 커짐에 따라 현재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
- S&P500 지수가 4월 저점에서 35% 급등하고 AI 열풍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, Citigroup은 시장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압력이 급격히 커졌으며 특히 나스닥은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고 경고
- Goldman Sachs와 Barclays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강세심리가 작년 12월 이후 가장 과열된 국면이라고 평가.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OpenAI, 엔비디아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닷컴버블을 연상시킨다고 지적
- 다만, 주가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. UBS는 주식시장의 강세는 견고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트럼프 대통령, 연방정부 셧다운 지속 시 연방공무원 해고 경고 되풀이

-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~5일 후에 연방공무원 영구 해고 계획을 발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
- 한편,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자동차, 철강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,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강조

■ EU, 철강 관세를 50%로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도 감축할 계획

-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쿼터를 지난해 대비 47% 줄어든 1,830만 톤으로 제한하고,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하는 규정 발표
- 동 규정은 유럽의회 및 EU 27개국의 승인 등 입법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되며,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

■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,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

- 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의 일부 반도체 금수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우회하여 작년에만 380억달러 상당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반입했으며, 여기에는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, 램리서치, KLA, 네덜란드의 ASML,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이 모두 포함
- 동 위원회는 수출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맹국간 규제 통합 및 통제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. 과거에도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과 네덜란드, 일본 등의 소극적인 규제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

■ 일본 엔화, 신정부 정책 영향으로 약세 압력 지속 전망 확산

- 다카이치 차기 총리는 BOJ가 금리인상에 있어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와의 소통도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,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BOJ의 금리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
- ING는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며, 금융시장에는 주가 상승, 수익률 곡선 경사화,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. BofA도 정치적·재정적 요인으로 금년말 달러/엔 환율 전망을 155로 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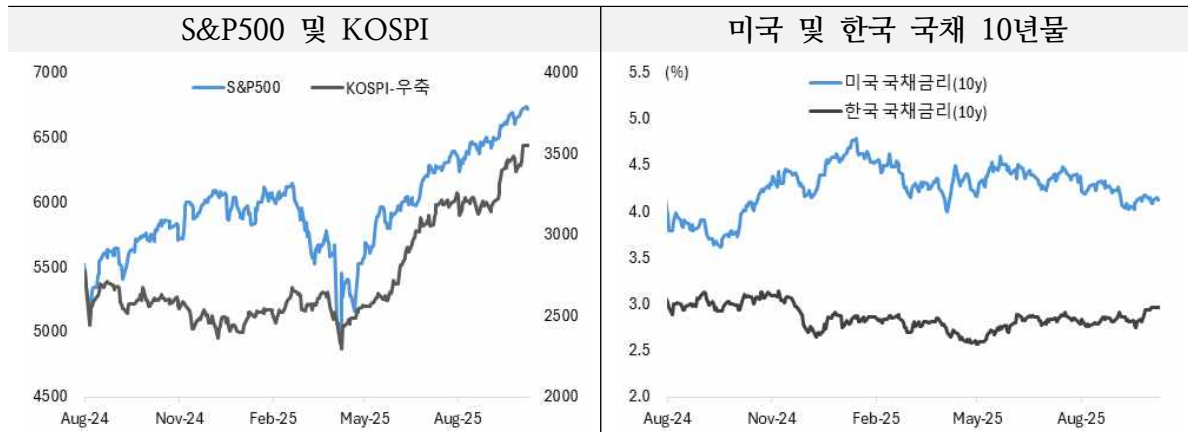
■ 연준 마이런 이사, 인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 시각 피력

-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마이런 이사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, 인구 증가율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연준의 이중 책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
- 반면,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를 급하게 내릴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고, 미국 경제가 일부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
- 뉴욕 연준의 서베이에 따르면,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3.2%에서 9월 3.4%로 소폭 상승. 특히 저소득 가계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
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연준 9월 FOMC 회의록, 미국 9월 재정수지 발표(10/8일 현지시각 기준)
- 연준 마이클 바 이사,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삼렘 총재,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 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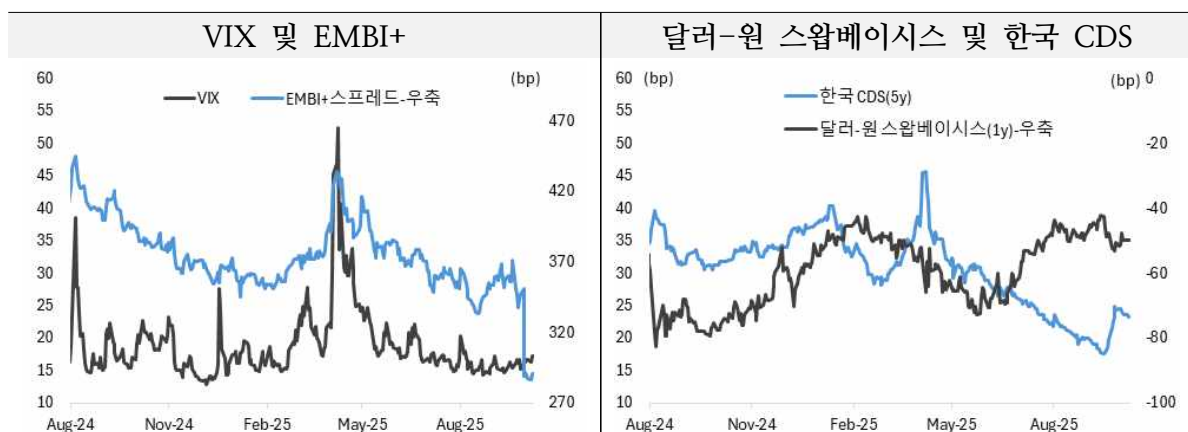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3, E-mail slchoi@kcif.or.kr